

역사와 함께 해온 한국인의 마음풍경들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 · ① 한국문학편

이동하 · 서울시립대 국문학과 교수

《출판저널》에서 국내 각 분야의 지식인 100명의 추천을 토대로 작성한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책들》 130종 속에는 국내의 문학 분야 책 14종이 포함돼 있다. 이를 다시 세분해 보면, 소설 6종, 시집 3종, 문학평론서 2종, 연구서 3종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꼭 들어가야 할 책이 빠진 경우도 있고 수궁하기 어려운 책이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그 점은 일단 접어 두고, 일단 제시된 결과를 존중하면서, 소설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간단히 그 의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소설의 경우, 한국 근대소설이 형성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그 제1단계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작품이 이광수의 《무정》이라면 제2단계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작품은 염상섭의 《삼대》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통설이 되어 있거니와, 이번의 조사에서는 이 두 작품이 나란히 목록에 올랐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두 작품이 기념비적 존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것은 내용과 기법 양면에서 모두 그러한데, 《무정》이 근대화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초입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마음의 풍경과 삶의 양태를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근대적 리얼리즘 기법의 초

기 수준을 대표해 준 작품이라면, 《삼대》는 그 바로 다음 단계에서 한국인들이 겪었던 모색과 방황의 가장 진솔한 문학적 형상화 이면서, 근대적 리얼리즘 기법의 성숙한 경지를 최초로 선보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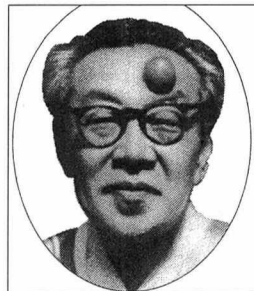
이 두 작품과 더불어 소설로서 목록에 오른 것으로 홍명희의 《임꺽정》, 최인훈의 《광장》,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이 있는데, 이 중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편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규모를 가진 대하소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원래 우리나라의 소설문학은 조선 후기의 《낙선재문고》에 속하는 작품들이 뚜렷이 증명하듯 대하소설의 영역에서 특별한 강세를 보여 왔거니와, 이러한 전통이 20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살아 있음을 위의 작품들은 생생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위의 세 작품은 모두 민중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민중들의 세계 속에 잠재해 있는 에너지로부터 문학적 열정의 원천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또 세 작품 중 조선 중기의 민중사에서 소재를 구한 《임꺽정》을 제외한 두 작품은 모두 20세기의 한국사를 소재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20세기의 한국사 자체가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격렬한 드라마로 가득차 있었던가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한국사 소재로 한 파란만장한 이야기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최인훈의 《광장》은 어떤 측면에서 의의를 인정받아 목록에 오른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남북분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개척자로서의 공적이 높기 평가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광장》은 소설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훗날 분단소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과시하면서 등장한 《태백산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한국사를 소재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펼치는 소설들은 20세기 한국사 자체가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격렬한 드라마로 가득차 있었던가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윗줄 왼쪽부터
한용운·염상섭·
김수영·최인훈·
박경리·조동일씨.

‘20세기의 시집’으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서정주의 《화사집(花蛇集)》,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 등 3종이 목록에 올랐다. 이들 중 《님의 침묵》은 한용운이 남긴 유일한 시집으로 기억되는데, 유구한 전통을 가진 한국의 불교사상과 ‘님의 떠남’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20세기 한국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절실한 고뇌가 한 자리에서 만나 이뤄진 참으로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서정주의 첫 시집인 《화사집》은 한국인의 토착적 정서 및 언어감각과 근대 서구문학의 세례를 깊이 받은 새로운 정신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결과로 맺어진, 역시 참으로 소중한 결실이다. 이처럼 이 두 시집은, 그 구체적인 면모는 서로 전혀 다르지만, 상이한 두가지 요소의 만남에 의해 비로소 창조될 수 있었던 업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며, 그 점에서 20세기 한국의 정신사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김수영 사후에 출간된 시선집 《거대한 뿌리》는 서정주의 세계 속에 세속성·현대성·사회성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서정시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깨뜨리고 서정시 장르의 폭을 크게 넓혀 주면서 후대의 시인들에게 다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목록에 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학평론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임화의 《문학의 논리》와 백낙청의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우리 문학계가

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흐름을 시와 문학평론 양면에서 대표했던 임화의 업적 중 문학평론 분야를 대표하는 《문학의 논리》가 목록에 오른 것은, 아마도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부류가 20세기 한국 문학평론계에서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해 왔다는 사실을 《출판저널》의 설문에 답한 이들 중 일부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자신의 회담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해방 후에 출간된 문학평론집 중 하필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자인 백낙청의 첫 평론집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 다른 수많은 우수한 문학평론서들을 제치고 유일하게 목록에 오른 것도 역시 동일한 사정에서일 것이다.

정신사적 특징 보여주는 노작

마지막으로 학술적 연구서 분야를 보면, 조운제의 《국문학사》, 김윤식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등 3종이 올라 있다. 조운제의 저서는 민족주의와 실증주의의 결합으로 창출된 위대한 업적으로서, 김윤식의 저서는 실증주의에 바탕을 두면서 또 한편으로 ‘근대성’의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고민한 성과가 반영된 노작(勞作)으로서 모두 빛나는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조동일의 저서는 원시시대에서 1945년까지의 한국문학사를 다섯 권의 방대한 분량에 담은 것으로서 정당한 논리, 독창적인 안목, 주제적 시각, 엄밀한 실증의 성과가 돋보이는 대작이다. ❖

20세기 국내 문학분야 고전

분야	저작자	책 제목	연도
소설	이광수	무정	1971
	염상섭	삼대	1947
	홍명희	임꺽정	1928
	최인훈	광장	1960
	박경리	토지	1977~94
	조정래	태백산맥	1986~89
시	한용운	님의 침묵	1926
	서정주	화사집	1941
	김수영	거대한 뿌리	1974
문학평론	임화	문학의 논리	1940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978
학술서	조운제	국문학사	1949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197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982~88